밤낮없는 서해상 중국어선 단속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중국 어선들의 불법 어로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목포해양경찰서 소속 1509함 해상특수기동대원들이 5일 새벽 4시50분께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70㎞ 해상에서 고속단정(아랫쪽)을 타고 배타적 경제수역(EEZ)을 침범한 중국선적 노영호 51557호에 접근하고 있다. 특수기동대원들은 중국 어선에 설치된 쇠창살을 피해 5분만에 승선, 중국 선원 20여명을 불법 조업혐의로 검거했다. 한편 서해지방해양경찰청은 4~5일 서해안 일대에서 불법조업 외국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11척을 적발했다.

/가거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예산 핑계 주요 도시계획도로 수년째 '찔끔공사'

광산 주민들 '화났다'

소촌공단 외곽도·송정시가지 우회도 등 늑장공사

광주시 광산구의 주요 도시계획도로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수년째 지지부진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5일 광산구와 주민들에 따르면 소촌공단의 교통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외곽도로 개설사업을 비롯해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 및 광주경찰청~상무로간 도로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공사 구간을 나누어 발주하는 등 '찔끔 공사'로 인근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소촌공단 외곽도로 확장공사'의 경우 지난 2004년 실시설계 용역 이후 2005년 120m 구간만을 우선 완공했다. 그러나 잔여 구간인 513m는 이후 5년이 넘도록 방치한 상태에서 최근 1차와 2차로 나누어 발주하는 등 8년째 공사중이다.

또한 '송정시가지 우회도로 개설사업'도 지난 2009년10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 구간을 나누어 착공, 3년째 완공하지 못한 채 지지부진해 인근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 밖에 광주경찰청에서 상무로를 잇는 도로 개설사업도 지난 2010년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한 후 전혀 진척이 없는 상태다.

해당지역 주민들은 "1km 가량의 소규모 도로공사를 예산 부족을 핑계로 8년이 넘도록 늑장 공사로 일관하고 있다"며 광주시 행정에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K(53)씨는 "지역민들의 숙원 사업이 해마다 계획만 세워 놓은 채 예산 부족을 빌미로 실행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시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지 소유자들의 불만도 잇따르고 있다. 도시계획으로 지정돼 각종 규제에 묶여 있다 보니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데다 보상을 받은 토지주들과 달리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 못한 토지주들은 상대적으로 허탈감에 빠져 있다는 것.

이에 대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관계자는 "예산 확보가 어려워 장기계속공사로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최승렬기자 srchoi@kwangju.co.kr

"천연물신약제도 백지화 하라"

광주·전남 한의사 2000여명 오늘 궐기대회

대한한의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6일 오전 9시부터 광주지방 식품의약품안전청 앞에서 한의사 2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천연물신약 제도 백지화'를 위한 호남권 한의사 궐기대회를 갖는다.

비대위는 천연물신약은 애초 천연물에서 성분을 추출해 신약을 만들기로 한 것인데, 현재는 신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의약 원리에 따른 처방에 근거한 약품이 천연물신약으로 변질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한의계의 우수한 전통 처방인 청파전·활맥모과주 등 복합 처방과 한약 단미제가 각종 새로운 이름으로 바뀌어 천연물신약이라는 전문의약품으로 둔갑하고 있다"면서 "현재 7개 천연물신약이 있지만 향후 74개의 제품이 출시 예정이다"고 말했다.

민용태 광주 비대위 위원장은 "현 제도는 단순히 한약을 양약으로 형태만 바꾸는 데 지나지 않다"면서 "한약에 대한 비전문가인 양의사들이 부작용도 모른 채 처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천연물신약 제도를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궐기대회 참석을 위해 광주·전남지역 한의사들은 오전 진료를 쉬기로 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112출동, 전남경찰이 가장 빠르다

상·하반기 만족도 평가 전국 1위

전남 경찰이 112신고를 받은 뒤 가장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고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평가됐다. 전남지방경찰청은 5일 전국 16개 지방청별 112신고 접수 만족도 평가에서 상·하반기 모두 1위로 종합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전남경찰청은 이에 따른 인센티브로 경감 1명 특별 승진 인원을 배정받았다. 전남경찰청은 경찰청이 추진하는 표준 112 통합시스템 구축 1차 사업 대상에 선정돼 지난 8월부터 도내 모든 112신고를 지방청에서 접수·처리하고 있다.

또 전남경찰청은 경찰청이 전국 지방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2년 국민중심 지역경찰성과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1위를 달성해, 경감 등 특별승진 6명과 특별승급 2명 등 8명의 포상인원을 배정받았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식중독 우려" 김치·양념류 34건 적발 회수

식중독을 일으키는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농협 김치공장에서 만든 김치·양념류가 34건이나 되는 것으로 잠정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서울과 포항에서 최근 발생한 집단식중독 조사 결과 노로바이러스 오염 우려가 있는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의 김치류와 양념류 제품 34건을 확인했다고 5일 밝혔다. 회수 제품에는 '아름찬 포기김치' '아름찬 갓김치' '풍산 총각김치' '아름찬 고들빼기김치' 등 김치류뿐 아니라 김치용 양념, 절임배추도 포함됐다. 회수 대상은 지난달 9일부터 지난 4일 사이에 이 공장에서 만들어진 제품이다. 전체 제품 명단과 사진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위해정보공개'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지난 4일 식약청은 서울과 포항 소재 고교 4곳에서 집단식중독이 발생해 원인 식품을 조사한 결과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에서 제조한 김치, 공장에서 사용한 지하수, 환자 가검물에서 모두 동일한 유형의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돼 오염 우려가 있는 김치류를 회수한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서안동농협 풍산김치공장은 농협의 10개 김치공장 중 한 곳이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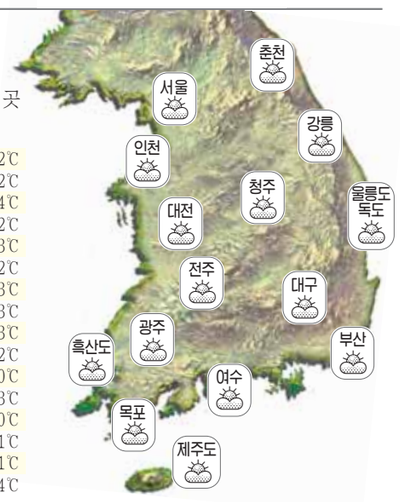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7시 27분 해짐 17시 20분 달뜸 --시 --분 달짐 12시 13분

아침기온 '뚝'

대체로 흐리고 눈 내리는 곳 있겠다.

광 주	구름많음	-3/2℃
목 포	구름많음	-1/2℃
여 수	구름많음	-1/4℃
나 주	구름많음	-4/2℃
완 도	구름많음	-1/3℃
구 례	구름많음	-3/2℃
강 진	구름많음	-3/3℃
해 남	구름많음	-2/3℃
장 흥	구름많음	-2/3℃
순 천	구름많음	-3/2℃
영 광	구름많음	-4/0℃
진 도	구름많음	0/3℃
전 주	구름많음	-6/0℃
군 산	구름많음	-5/-1℃
남 원	구름많음	-8/-1℃
흑산도	구름많음	2/4℃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2.0~5.0m
먼바다	북서~북	3.0~6.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2.0~4.0m
먼바다	북서~북	3.0~5.0m

체감온도	동파지수	뇌졸중지수
관심	높음	낮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3.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서~북	1.5~2.5m
먼바다	북서~북	2.0~4.0m

	밀물	썰물
목포	06:40 19:09	11:50 --:--
여수	01:31 14:06	07:35 20:2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7(금)	8(토)	9(일)	10(월)	11(화)	12(수)
날 씨						
최저/최고	-3/5	-2/5	-4/3	-3/5	-2/6	-1/7

광주·전남 오늘 최고 7㎝ 눈

영광·함평 대설특보 가능성

서울과 경기, 강원도 등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는 6일까지 최고 7㎝의 눈이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5일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은 저기압에 동반된 눈구름대에 의해 만들어진 눈이 6일 오전까지 내리다가 점차 그칠 것으로 보인다.

적설량은 광주·전남 대부분지역은 2~7㎝, 남해안은 1~3㎝로 예상되며 아침 최저기온은 대부분지역이 영하권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영광과 함평에는 올 겨울 들어 처음으로 대설특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높다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기상청은 또 여수, 해남, 완도, 무안 등 전남 9개 시군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해안가와 일부 내륙지역에서는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당분간 강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5일 오후 6시 현재까지 내린 눈은 경기도 이천 11.5㎝, 인천 11㎝, 원주 10.8㎝, 서울 7.8㎝ 등으로 6일까지 최고 15㎝ 이상의 적설량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보문고 일반고 전환

광주시교육청은 5일 "학교법인 보문학숙이 운영하고 있는 보문고에 대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고시했다.

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를 심의한 뒤 교육과학기술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요청했으며 교과부도 이를 승인했다.

보문고는 2013학년도부터 일반계 고교로 분류돼 신입생을 받는다. 현재 1,2학년은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을 받는다. 자사고였던 보문고는 지난 8월 광주시교육청에 일반고 전환을 신청했다가 철회했지만, 최근 신입생 모집에 실패하자 자사고 운영을 포기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대한민국 보건복지분야 최대 부패사례 - 가짜양약(천연물신약) 사기사건 -

- 제약산업의 활성화라는 명분하에 한의약을 전혀 모르는 양의사들이 한약을 처방하여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매년 수천억원씩 국민 혈세를 제약회사에 퍼줌 -

사진 | 한국피앰지제약에서 출시한 레일라정.

겉보기엔 양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방의약품이다.
정부에서 차세대 성장산업으로 신약개발사업을 육성했고 혈세도 9000억원이나 투입했다. 하지만 모두 실패하자, 식약청 일부 부패공무원들이 한약처방을 갖고 와서 알약으로 만들어도 신약으로 인정을 해준 것이다.
소위 천연물신약!!! 사기 사건이 그것이다.

레일라정도 원래 한의사 고 배원식 선생이 만든 처방인데, 처방을 도용하여 졸속으로 신약허가를 거치면서 임상시험, 독성시험도 제대로 하지 않고 출시된 상태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약을 양의사들이 처방하여 국민건강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여러분, 좌측의 알약을 잘 보십시오. 이게 과연 무슨 약일까요?
이 약은 며칠 전 보건복지부에서 양방 보험약으로 등재시켜준 레일라정이라는 약입니다. 식약청에서는 이미 천연물신약이라고 양약허가를 내줬습니다.
겉으로는 양약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한약처방으로 만든 완전한 한약입니다.
이런 한약을 제약회사에서 신약개발했다고 선전하고, 한방이 아닌 양방으로 국민건강보험에 등재시켜 일년에 수천억원씩 국민혈세를 제약회사에 퍼주어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내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의학을 전혀 배우지 않은 양의사들에 의해서 한약이 처방됨으로써 국민건강을 크게 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약회사 이권이 좋아도 공무원들이 이런식으로 국민건강을 저버리면 안됩니다.
한약을 전혀 배운적이 없는 양의사들에게 한약을 처방하게 하는 기가막힌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황당한 일입니다. 대한민국의 보건복지분야 최대의 정책부패 사례입니다. 반드시 바로잡아야합니다.

여러분들은 한약에 대해 전혀 모르는 양의사들에게 혹시 다음과 같은 한약을 처방받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래 의약품들은 완전한 한약(한약제제)입니다.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방의약품으로 분류한 것으로 학술적으로 양의사가 처방할 수 없습니다.

양의사들에게서 처방되고 있는 한약제제 : 조인스, 스티렌, 신바로, 시네츄라, 모티리톤, 레일라

대 한 한 의 사 비 상 대 책 위 원 회

※ 본 위원회에서는 한약의 전문가인 한의사들에 의해 한방의약품이 안전하게 처방되는 그날까지, 국민건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